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전시된 미디어아트 '다시 태어나는 오월'(이아남)

# 뜨거운 오월의 광주

40년 전 폭력과 저항, 충격과 피로 물들었던 광주의 도심은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이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민주화 항쟁의 마지막 격전지 옛 전남도청을 둘러싼 구도심을 오래 걸었다.

글·사진 한미희 기자

# 항쟁의 불길 따라 걷는

scene 01

# 오월길



광주의 거리에 섰다. 4월의 따뜻한 햇볕 아래서 나무는 보송보송한 새잎을 피우기 시작했지만, 한여름보다 뜨거웠던 5월을 앞둔 거리는 한산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해 왔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 취소된 터였다. 아시아문화전당도, 5·18민주화운동 기록관도 모두 기약 없는 휴관에 들어갔다.

‘오월길’을 걷기로 했다. 민주화운동 사적지와 문화관광자원을 이어 5개 테마, 18개 코스로 조성한 도보 여행길이다. 그 중 첫 번째인 오월인권길 햇불코스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발원지인 전남대학교에서 시작해 시민군의 마지막 결사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까지 이어진다.



## 항쟁의 시작, 전남대 정문

1979년 10월 군인 출신 독재자가 총에 맞아 숨지면서 유신독재가 끝나는 듯했지만, 독재를 떠받치던 군부 안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같은 해 12월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내각 장악에 나섰고, 대학생들의 학원민주화 투쟁은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정치투쟁으로 발전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요구에 국회에서도 계엄 해제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위기에 몰린 신군부의 요구에 최규하 정부는 5월 17일 자정 전국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신군부는 전국 대도시에서 군대를 투입했고, 전남대와 조산대에 배치된 것은 시위진압 훈련에만 몰두해 온 공수부대였다. 일요일 아침부터 도서관에 공부하러 나온 학생들과 '휴교령이 내리면 다음 날 아침 10시에 교문 앞에 모이자'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나온 학생 수백명이 정문에 모여 외친 구호와 노래가 5·18 민주화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 차도로 뺨 뚫린 정문보다는 오른쪽의 샛길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갔다. 1980년 당시 원래의 정문 기둥 하나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5·18 민주항쟁 사적 1호를 알리는 타원형의 커다란 빗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5월 8~14일 민족민주화성회 당시 학생들이 전경과 대치하고 있는 흑백사진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 2, 3 5·18 민주화 항쟁의 발원지인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오월길'이 시작된다. 1980년 5월 민족민주화성회 때 찍힌 흑백 사진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 5.18 민주항쟁 사적 2호를 알리는 광주역 광장의 빛들  
 2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일대(사적 3호)로 가는 대인교차로 지하도  
 3 옛 전남도청 앞에 세워진 5.18 민주항쟁 알림탑

공수부대가 가차 없이 휘두르는 진압봉에 흠여졌던 학생들은 광주역 광장(사적 2호)에 다시 모여 전열을 가다듬고 도청으로 향했다. 광주역에서는 이들 뒤인 20일 밤 이곳에 주둔했던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했다. 다음 날 아침 시신 두구가 발견돼 도청 앞 광장으로 옮겨오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시민들까지 동참하며 항쟁의 불길은 거세졌다. 광주역 광장 가운데 있던 분수대는 사라지고, '그때'를 목격했던 큰 소나무들이 총선 플래카드를 걸고 있었다.

### 금남로로 향해 가는 길

광주역 광장에서 방사형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대인교차로 방향으로 향했다. 4월의 햇볕도 제법 따가웠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목이 말랐다. 낮 최고 기온 25도를 기록했던 1980년의 그 날, 300~400명의 학생이 계엄군에 쫓기며 외쳤던 구호가 텅 빈 거리에서 들리는 듯했다.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씨 석방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대인교차로에서 롯데백화점과 광주은행이 있는 블록이 시의



버스공용터미널(사적 3호) 자리다. 5월 19일 전남 교통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계엄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계엄군은 대합실까지 난입해 총검을 휘둘렀고, 시외버스를 타고 광주를 벗어난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격한 참상을 알리면서 항쟁은 전남 지역 곳곳으로 확산했다. 교차로에서 제봉로를 따라가면 일흔에 가까운 나이에 시민 학살에 항의하는 '죽음의 행진'에 참가했다가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 징역을 받았던 고 홍남순 변호사 가족(사적 29호)이 나온다. 왜곡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로 불타던 광주MBC 옛터(사적 7호), 투사회보를 만들었던 녹두서점 옛터(사적 8호)도 잇달아 만난다. 두 옛터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과거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고, 재야 민주인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문건을 작성했던 홍 변호사의 단층 가족은 보존 작업을 위해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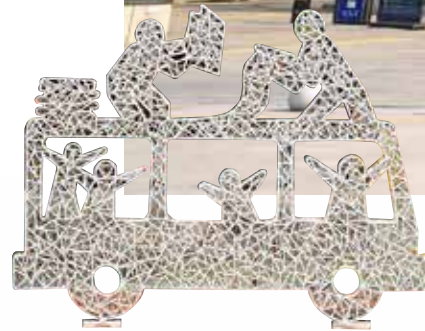
**뜨거운 광장에 서서**

녹두서점 옛터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아시아문화전당이다. 하늘마당과 예술극장을 지나 상무관(사적 5-3호) 앞에 멈췄다. 잔인하게 학살당한 시민들의 주검을 임시 안치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작은 두 손으로 아버지의 영정을 잡고 턱을 괴고 있던 다섯살 꼬마의 사진이 독일 슈피겔지에 실리면서 세계에 5·18을 알린 상징적인 사진 중 하나가 됐다. 죽음의 의미도, 슬픔의 감정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나이에 상복을 입은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울렸다.

시민군의 마지막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사적 5-1호)은 상무관 등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남아 있다. 재미 건축가 우규승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설계하면서 5·18의 역사성을 지키고자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상무관 건물을 보존하고 나머지 신축 건물은 모두 지하로 내려보냈다. 지상에는 너른 광장과 공원이 만들어졌고, 지하 공간도 천창을 통해 빛이 들도록 해 '빛의 숲'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상무관과 옛 전남도청 사이, 5·18 민주광장(사적 5-2호)에서는 부모와 함께 나온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키크보드를 타고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중년의 남성은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한 달 일찍 물을 뿜기 시작한 분수대를 몇 바퀴째 돌았다.

분수대 앞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돌아서면 오른쪽에 미색 외벽으로 깔끔하게 단장한 전일빌딩(사적 28호)이 보인다. 금남로 1가 1번지에 들어선 이 빌딩에는 당시 언론사들이 입주해 있었고, 계엄군을 피해 달아나던 시민들이 몸을 숨기기도 했다. 새 주소가 금남로 245로 바뀌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명하는 탄흔 245개가 확인되면서 '전일빌딩245'라는 새 이름을



1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다시 태어난 옛 전남도청 별관  
 2, 3 시민들의 주검을 임시 안치했던 상무관에서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는 5살 꼬마의 사진은 세계에 5·18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진이 됐다.  
 4, 5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개관을 앞둔 전일빌딩245. 외벽에 주황색 원으로 탄흔이 표시돼 있다.

을 갖게 됐다. 이후 탄흔 25개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5·18 기념공간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전일빌딩245는 애초 지난 4월 초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개관일을 연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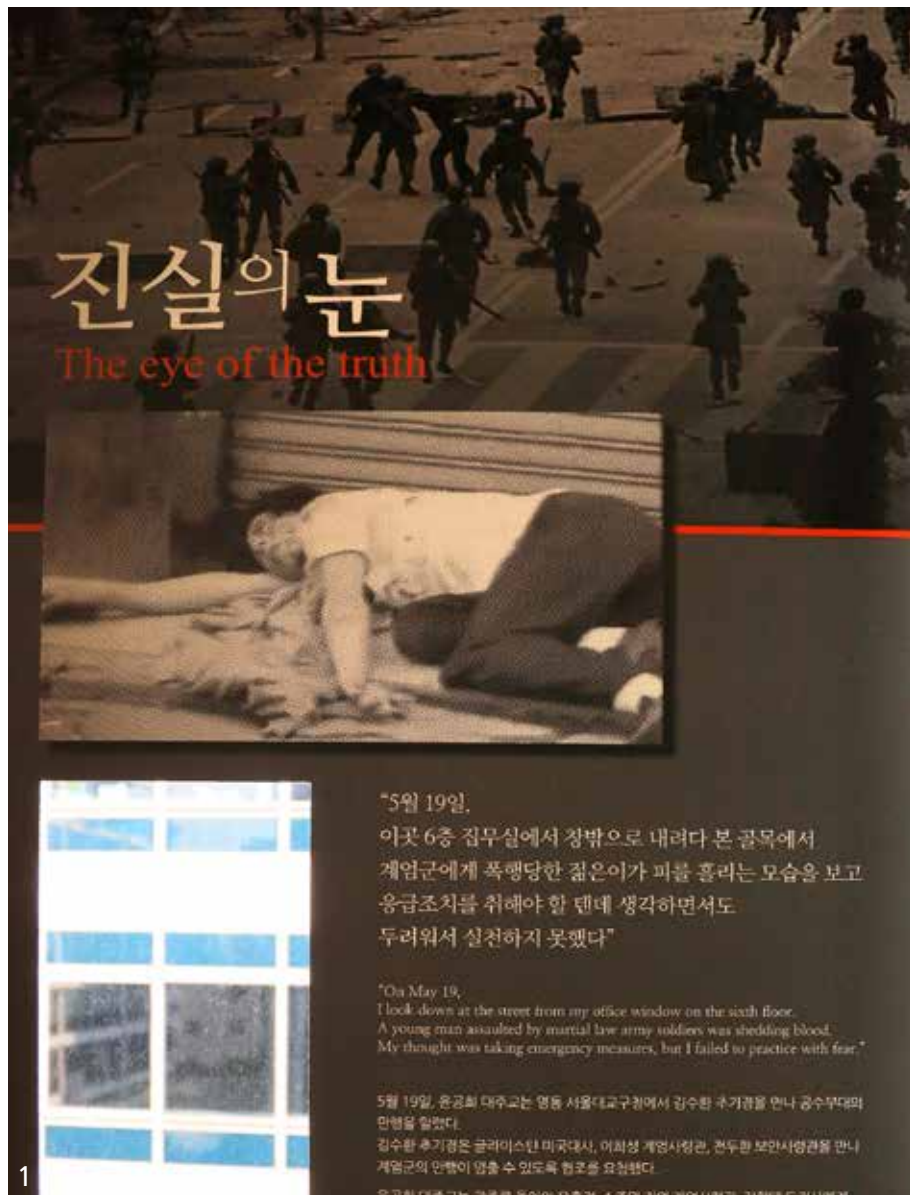


**세계유산이 된 5·18 기록물**

전일빌딩245에서 시작되는 금남로(사적 4호)의 또 다른 이름은 '유네스코 민주인권로'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명예도로로 지정됐다. 날마다 30여 만명의 광주 시민이 운집했던 항쟁의 거리를 알리는 사적비는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앞에 있다. 당시 가톨릭센터였던 이 건물 앞에서 18일 최초의 학생 연좌시위가 열렸고, 20일에는 택시를 중심으로 100여대의 차량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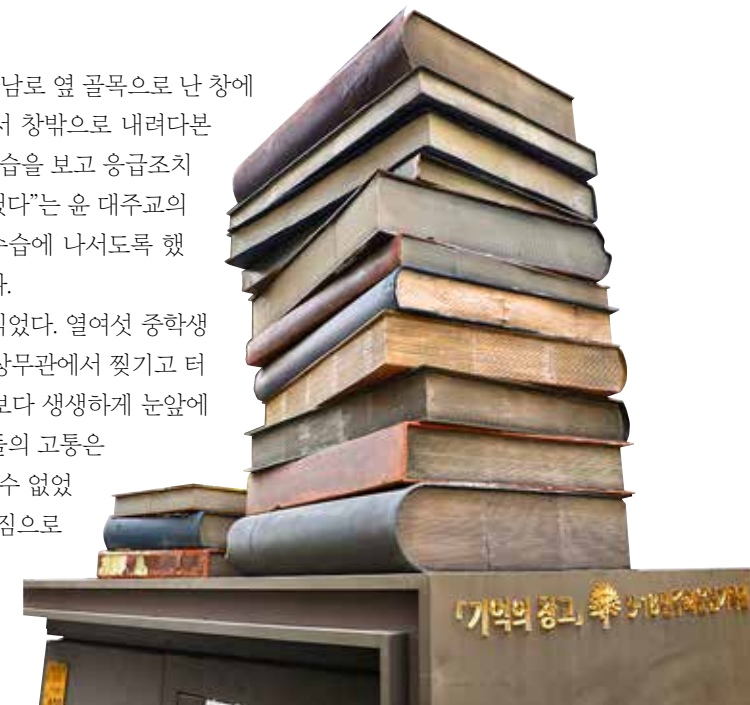
기록관 역시 임시 휴관 중이지만, 취재 협조를 받아 들어갔다. 1~3층 상설 전시실을 지나면서 총탄이 관통한 유리창부터 시작해 다양한 흑백 사진과 기록물로 당시의 참상을 다시 한번 직시했다. '6·25 때보다 더했다'는 군인들의 만행 속에서도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주먹밥을 나누고, 줄을 잇는 헌혈에 피가 남아도는 질서 있는 자치공동체를 이뤄낸 시민 정신이 더 위대하게 빛났다.

1 윤공회 대주교 집무실의 창문. 윤 대주교는 이 창을 통해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했다.  
2, 3 5·18 당시의 흑백 사진을 배경으로 거리에 흩어져 있는 주인 잃은 신발과 트레에 실린 시민들의 시신을 재현해 봤다.



4 항쟁 당시 문화선전대로 활동했던 화가 홍성담의 판화 '가자, 도청으로!'  
5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된 '광주 시민은 통곡하고 있다'(무명) '4·19도 5·16도 저 비참하였던 6·25도 그 귀에 익은 숫자를 차라리 잊을 수 있을지언정 오늘을 살고 있는 광주 시민으로서 차마 어제 오늘에 있는 5·18을 어느 누가 잊을 수 있으리요'라고 시작된다.

6층에는 당시 윤공회 대주교의 집무실이 복원돼 있다. 금남로 옆 골목으로 난 창에는 '진실의 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곳 6층 집무실에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골목에서 계엄군에게 폭행당한 젊은이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생각하면서도 두려워서 실천하지 못했다"는 윤 대주교의 고백이었다. 윤 대주교는 조비오, 김성용 신부가 사태 수습에 나서도록 했고, 이후 진상규명과 광주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썼다. 오월길을 걷고 나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다시 읽었다. 열여섯 중학생 동화가 금남로에서 친구가 총에 맞는 모습을 목격하고, 상무관에서 찢기고 터진 시신을 확인하고, 도청에서 쓰러지는 순간들이 영화보다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졌다.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은 더욱 생생해서, 읽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생각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글을 쓰는 4월도, 다가오는 5월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추모하는 달이다.



scene 02

## 도시로 스며든 미술 광주폴리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1995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광주비엔날레,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화 수도' 공약에서 출발해 2015년 문을 연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문화 도시, 예술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011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이었다가 2013년부터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폴리'도 하나의 축이다. '폴리'(folly)는 장식용 건축물을 뜻하는 말이다. 국내외 유명 건축가와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광주폴리'는 광주 도심 곳곳에 의미와 볼거리를 심어 놓고 상호작용을 끌어내고 있다. 미술인 듯 아닌 듯, 숨어 있는 듯 아닌 듯한 폴리들을 숨바꼭질하듯 하나씩 찾고 마주치고 발견하는 것이 광주 구도심을 걷는 또 다른 재미다.



1 광주읍성과 읍성의 도로를 황동으로 새긴 '기억의 현재화' 2 읍성 북문인 공북문 터에 세워진 '99칸'  
3 '뷰폴리'에서 내려다보이는 아시아문화전당  
4 구시청사거리의 '열린공간'

**광주옛성 흔적을 따라**

출발은 지상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아시아문화전당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명당, '뷰 폴리&설치작업 '자율건축'(문훈·리얼리티즈 유나이티드)이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에 있는 광주폴리 정보센터를 거쳐 옥상으로 올라가면 된다. 기둥이 회전하며 색이 바뀌는 'CHANGE' 광고판 앞에 서면 광주읍성터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주욱 펼쳐진다. 광고판 뒤편으로 가면 선명한 분홍색과 노란색 스트라이프로 장식한 구조물과 테크에서 무등산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지상으로 내려오면 아시아문화전당을 하나의 꼭짓점으로 오각형을 이루는 광주읍성터를 따라 10개의 폴리가 설치돼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한쪽 남문인 진남문이 있던 자리에 광주읍성의 일부가 복원돼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개발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읍성의 북문인 공북문 터에 한옥의 공간과 사회적 위계질서



를 표현한 '99칸'(피터 아이제만)이, 동문인 서원문 터에 '서원문 제등'(플로리안 베이겔)이 세워져 그나마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

서문인 광리문이 있던 황금동에서는 광주읍성과 읍성의 도로를 황동으로 새긴 '기억의 현재화'(조성룡)가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의 사거리 한가운데 야트막한 둔덕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속도를 늦추고 광주의 과거를 내려다보게 한다. 두 블록 떨어진 구시청사거리에 만들어진 '열린공간'(도미니크 페로) 역시 박스 모양의 노란색 구조물을 둘러싼 여러 개의 동심원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오래된 상업지구 한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며 '만남의 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 금남로 공원의 '유동성 조절'  
2 사라진 성곽의 돌을 형상화한 '열린 장벽'  
3 충장로 안길의 '투표'



읍성 안쪽의 오랜 핵심 상업지구인 충장로 안에서도 청소년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이 있다. 과거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었고 현재는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있는 충장로 안길의 이 골목에서는 '투표'(웬 쿨하스·잉고 니어만)를 지나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질문이 머리 위 전광판에 흐르고, 바닥에 '예', '아니오', '중립'으로 표시된 선택지가 다른 색깔로 표시돼 있다. 잠시 지켜보는 동안 대부분이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질문 아래 표시된 집계 수치는 '예'가 '아니오'보다 두 배 가까운 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 사거리를 놓치지 말 것

광주세무서 앞에서 바다과 4.5m 높이에 설치한 사물로 사라진 성곽의 돌을 형상화한 '열린 장벽'(정세훈·김세진)을 지나 중앙로와 금남로가 만나는 금남로 공원으로 향하면 금남로공원 북쪽 모서리를 감싸고 있는 '유동성 조절'(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이 있다. 시내 한복판 대로가 교차하는 곳이지만 보행자에게는 대로 방향으로의 시선을 차단하고 인도와 공원, 지하도 상가를 아늑하게 아우른다. 다시 한미쇼핑 사거리에 이르면 교차로의 좁은 인도에 신호등과 가로등, 설비 장치 사이에서 가로수 두 그루를 완전히 품고 있는 강철봉 구조물을 마주한다. 공중에서 불규칙하지만 서로 만나 무리를 이





1



2

루는 강철봉은 '광주 사람들'(나데르 테라니)이다. 전남여고 방향으로 제봉로를 걷다 동명로와 만나는 장동로터리에서는 소쇄원에서 영감을 얻은 '소통의 오두막'(후안 에레로스)을 만난다. 나무와 기둥 사이를 유연하게 흐르는 구조물은 밤에는 조명으로 기능한다.

**동네 구석구석으로**

아시아문화전당 동쪽의 오래된 동네에서도 폴리를 찾을 수 있다. 서석초등학교 옆 보행자 전용 도로에 설치된 '아이 러브 스트리트'(위니 마스)는 바닥에 테크와 잔디, 자갈, 우레탄, 나뭇조각 등 다른 재료로 'I LOVE'라는 글자를 만들고 뒤에 대형 철판을 설치해 낙서와 그림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반대편 맨 끝 노란색 계단에 올라 작품 전체를 볼 수 있다.

폐선된 철로에 조성한 도시공원 푸른길에 있는 '푸른길 문화센터'(승효상)는 1960년대까지 있던 광주교도소 재소자들이 농장에 일하러 갈 때 건너다녔던 농장다리 아래 설치됐다. 계단은 공연의 객석이나 쉼터가 되고, 녹이 슨 강판은 사라진 철로를 연상시킨다.

푸른마을 공동체센터 앞에 있는 '꿈집'(조병수)에는 빛고을 광주가 담겨 있다. 옛집의 박공 모양을 닮은 집의 외부는 850개의 동판, 내부는 680개의 티타늄판이 서로를 붙잡고 지탱하고 있다. 티타늄판의 분홍색은 칠한 것이 아니라 빛의 간섭과 반사로 만들어진 천연색이다.



3

- 1 강철봉이 불규칙하게 무리를 이룬 '광주 사람들'
- 2 초등학교 옆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아이 러브 스트리트'
- 3 빛고을 광주를 담은 '꿈집'
- 4 폐선된 철로 자리에 자리 잡은 '푸른길 문화센터'
- 5 소쇄원에서 영감을 받은 '소통의 오두막'



4



5



1 양림동 골목 한희원 미술관을 안내하는 벽화  
 2 광주의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인 우일선 선교사 사택  
 3, 4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펭귄마을 안내도  
 5 펭귄마을의 펭귄언덕



scene 03

끝나지 않은  
골목 여행

민주화 향쟁의 횃불을 따라, 광주읍성터를 따라 광주의 구도심을 한없이 걷고 또 걸었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구도심에서 광주천을 건너가면 100여년 전 광주에서 처음으로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양림동이 역사문화마을로 조성돼 있다. 1920년대 지어진 우일선 선교사 사택 등 기독교 유적과 전통가옥이 어우러져 있다. 골목골목 숨어있는 작은 미술관과 카페, 주민과 예술가들이 폐품을 모아 예술작품으로 꾸민 펭귄마을까지 돌아보려면 반나절이 부족하다. 해 질 무렵 산책 나온 주민을 따라 푸른길 공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명동 카페 거리다. 고급 주택을 리모델링한 카페와 식당, 게스트하우스들이 모여 있어 저녁부터 더 활기를 띠는 곳이다. ♣